

‘선거 문자 폭탄’ 유권자는 짜증난다

지역·시간 관계 없이 무차별 발송 공해 수준 문자 발송 비용 세금으로 지원... 개선책 시급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때도 없이 발송되는 휴대전화 선거 홍보 문자로 지역 유권자들이 골머리 앓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출마후보자가 많은 지방선거 특성상 대량으로 메시지가 발송되면서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권자 지역과 무관한 타지역에서까지 문자를 발송하고, 근무시간 등에 전송되면서 업무 지장까지 초래되고 있다.

일각에선, 문자전송 비용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돼 세금 낭비 및 선거철 문자공해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6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 등

에 따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합법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다. 공식선거법상 선거 운동 차원에서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건 최대 8회까지 허용된다.

20명 이하에게 보내는 경우는 제한이 없다. 이때도 컴퓨터 등 단체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 안 된다. 전송시간 선관위에 신고한 전화번호만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후보자 선거사무실 등에서 무분별하게 발송한 선거 문자메시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문자 공해’라며 짜증 섞인 반응이다. 일부 유권자들은 하루 10통 이상

의 문자가 도착해 일일이 확인하느라 일상 생활에 지장까지 초래되고 있다.

회사원 정모씨(34)는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요 며칠 사이 하루에 8통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최근엔 회의 시간 갑자기 울린 휴대전화 때문에 눈총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다 보니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지역의 후보에게서도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모씨(44)는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 후보자라며 문자와 전화가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걸려 왔다”며 “광주에만 30여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생전 가보지도 않은 경기도에서 이런 문자와 전화가 걸려 왔는지 황당하다”고 전했다.

선거문자 폭탄에 유권자들의 스트레스는 갈수록 쌓이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공식선거

법엔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정보 습득에 별도의 규제책이 없다.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문자전송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하는 것도 선거철 문자폭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민세금으로 문자비용이 충당되는 셈이다.

한 지역민은 “선거때만 되면 짜증이 날 정도로 스팸 문자가 쏟아진다”며 “문자발송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현행 공식선거법상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유효투표총수의 10~15%는 50%를 보전받을 수 있다.

즉, 후보자가 문자발송 비용으로만 수천만원을 썼더라도 ‘선거공영제’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기지 않는다면 전액 국고

로 보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문자전송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에서 지원된다는 것이 문제다”며 “공직 선거법의 허점이 맞물려 문자공해를 더욱 부채질 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사무실 등에서 무분별하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민원과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는 집계하지 않았지만,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각 시·군 선관위에 문자메시지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단순 홍보성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연락처를 불법으로 수집·활용하거나 수신자 동의 없이 반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6~29	흑산도	16~23
담양	17~30	구례	17~31
화순	17~31	곡성	17~31
영광	17~27	완도	18~28
함평	17~29	강진	17~29
무안	17~27	장흥	17~29
영암	17~30	해남	17~28
진도	16~26	고흥	17~28
신안	18~26	보성	16~28

일출 05:18 일몰 19:45
월출 01:07 월몰 12:42

목포	만조 07:43 20:12	여수	만조 02:43 15:33
	간조 00:24 13:34		간조 09:29 21:16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전남서 라돈 침대 상담 급증

피해 상담 343건 접수, 25건 수거

전남에서도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소비자생활센터, 한국부인회 순천·여수지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나주지회, 여수 YMCA, 목포 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를 통해 모두 343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5건에 해당하는 제품은 대전침대에서 수거를 완료했다. 전남도는 나머지 318건에 대해서는 탁송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비닐 커버를 즉시 공급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침대 수거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라돈 노출을 줄이려고 개별 보관용 비닐 커버를 공급하기로 했다.

비닐커버 공급을 바라는 도민은 보관하고 있는 매트리스 규격을 확인해 전남 소비자생활센터(061-286-4170~1)로 전화하거나 전남 소비물자정보시스템(http://sobi.jeonnam.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라돈 검출 매트리스는 ‘그린 헬스 2’ 등 모두 21개 모델이다.

전국에 판매된 양은 8만7,000여 점이고 이 가운데 2,000여점은 전남에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근산 기자



현충일 추모공연 6일 오전 광주공원 현충탑앞 광장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광주여대 무용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돌출무용단원들이 영령들을 위로하는 추모공연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AI 기반 신약 플랫폼 구축 과제 선정

GIST 남호정 교수 연구팀 10억 지원받아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남호정 교수가 제안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연구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바이오분야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됐다.

‘빅데이터·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과제는 빅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50만건의 화합물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신약개발 시간·비용을 1/3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국내에 축적돼 있는 연구데이터 지식자산화, 빅데이터와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바이오분야 시범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기반기술 구축을 취지로 삼고 있다.

해당 과제는 남호정 교수, 이현주 교수(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용철

교수(생명과학부), 안진희 교수(화학과),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의 학제간 융합으로 인공지능 연구자와 신약개발 연구자가 한 팀이 돼 연구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신약 후보물질 예측 모델을 개발·검증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1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향후 2년간(2018-2019) 추진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전남매일 www.jndn.com

“휴일 민원서류, 서구 365일 민원실로 오세요”

광주 서구는 휴일 없이 365일 운영하는 민원봉사실에서 14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서구 365일 민원봉사실은 차평동 롯데마트상점 1층에 자리한다.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일에는 3시간 긴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관공서 휴무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한다. 다만, 신분증과 일부 민원서류 발급 신청은 평일 구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 /김종찬 기자

수능 난이도 가늠 모의평가
2,054개 교과서 오늘 실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모의평가가 7일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7일 전국 2,054개 고등학교와 420개 지정학원에서 수능 모의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이번 모의평가는 11월 15일 치러질 본 수능의 출제방향과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다. 평가원은 6월과 9월 두 차례 공식 모의평가를 치러 수험생에게 문항에 적용할 기회를 주고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수능에 반영한다.

이번 모의평가가 지원한 수험생은 지난해 6월보다 4,585명 늘어난 59만2,374명이다. 재학생은 51만6,411명, 졸업생 등은 7만5,963명이다.

영역별로 보면 국어영역은 59만1,611명, 수학영역 가형은 22만8,029명, 나형은 35만9,901명이 지원했다. 영어영역은 59만1,568명, 사회탐구영역은 30만5,788명, 과학탐구영역은 27만2,480명, 직업탐구영역은 1만2,726명이고 제2외국어/한문영역에는 5만9,929명이 지원했다. 한국사는 필수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국어영역(1교시)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실제 수능과 똑같이 치러진다.

교육부는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 학생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자제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10일 오후 6시까지다. 정답 확정일은 19일이고, 채점 결과는 28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연합뉴스



신의한수! 세기의대결!! 이세돌 기념관에서...

제6회 신안천일염 전국대학생바둑대회

참가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칠수 있기를 바라며 좋은 추억을 간직하시고 승단과 승급의 기쁨을 만끽하세요!!

- ▶ 일시 : 2018년 7월 20일(금) ~ 21일(토)
- ▶ 장소 : 신안군 비금 이세돌 바둑기념관
- ▶ 참가자격 : 전국대학재학생
- ▶ 참가부문 : 최강부(5단이상), 유단자부(1~4단), 고급부(1~3급), 중급부(3급이하)